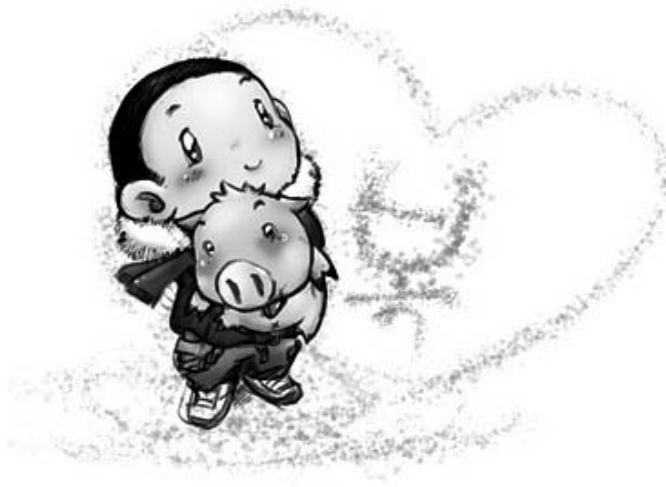


특집 1 :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2007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 단체의 새해구상에서도 대부분 언급되고 있듯이, 도서관법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부 내 도서관 정책기획단 설립, 광역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지정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등 정책시스템의 전면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정부와 도서관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더 한층 요구된다.

디즈니 前 CEO인 마이클 아이스너는 구성원이 갖고 있는 열정과 창의력에 대한 믿음을 “나는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새로운 창조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열정의 원천을 건드릴 때, 그 힘은 기업의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열정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강력한 에너지다. 더욱 발전된 도서관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2007년에는 내실있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설문내용

- ① 귀하께서는 2006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박준식 회장



① 2007년은 도서관법이 전면개정되어 도서관계에 특히 공공도서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직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정보서비스위원회가 설치된다. 어떠한 연유이거나 도서관이 정부의 중요정책으로 부상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소속문제, 사서정원, 예산 등 많은 현안사항을 방치한 채 정책만 세우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07년은 도서관계에 또하나의 굵은 선이 그여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② 우리 대구·경북지구 협의회에서는 관중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 공공, 학교도서관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 [연락처 : 박준식 회장, (704-701)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대학원, Tel. 053-580-6250, jspark@gw.kmu.ac.kr]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세빈 회장



① 초·중·고등학교의 논술교육 및 독서생활화교육의 강화로 도서관, 가정, 학교와 연계된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 인간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각 지역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평생학습관, 문화회관등의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② 우리 협의회에서는 첫째, 정기총회 및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

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립·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급학교장, 사서담당, 대학도서관사서담당을 대상으로 4월 정기총회 및 11월 가을 특별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광주·전남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월 독서의 달에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할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국민독서생활화에 기여한 광주·전남 우수도서관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연락처 : 김세빈 회장, (501-110) 광주 동구 황금동 56-1번지, Tel. 062-221-5570~2, news62@hanmail.net]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김인경 회장



① 2007년 정해년에는 연구와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Digital Contents 구축,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제의 구축, 디지털 자원의 공동개발 이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시스템(dCollection) 구축의 확대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내학술정보 유통속도의 가속화와 학내학술정보의 체계적인 라이선스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한편 2006년 12월 경북대 도서관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1호인 전자·정보통신공학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을 계기로 이 분야가 본격 가동되어 정보를 점유하는 시대에서 공유하는 시대로 접

어드는 전환기가 될 것이다.

② 자금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에 발족한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권 공동대책위원회를 기능강화 차원에서 2006년도에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로 개편 발족하였으며,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산하에 저작권 개정팀, Web-DB공동수서팀 등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경주하고자 한다. [연락처 : 김인경 회장,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043-261-2889, ikkim@chungbuk.ac.kr]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이정숙 회장



① 첫째, 2007년 4월 5일 시행 예정인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가동되어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의 일원화, 체계화가 된다면 대학도서관발전에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현재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원문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대학협의회와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② 주요사업 계획은 첫째, 대학에서의 도서관 위상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부속기관으로 규정된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중심기구로 자리 잡히게 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및 인원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운동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학도서관에 절대 불리한 법 조항의 개정 운동을 강화한다. 셋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사업을 위해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대학도서관의 역할,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칭 ‘대학도서관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넷째, 전자 정보 개선사업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도서관이 고정화된 전자자원 구입비 부담에서 벗어날 대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자자료 공동구매를 위해 노력하며 구매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회원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와 공조체제유지, 여섯째, 선진 대학 도서관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 이정숙 회장, (136-792)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389, Tel. 02-760-4280, novellee@hansung.ac.kr]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서정욱 회장

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도서관법 전면 개정 등을 계기로 높아진 도서관의 위상과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개선된 서비스로 보답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효율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각 도서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정보지식사회에 도서관이 지식의 보관과 유통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기능을 하도록 많은 변화 및 연구가 필요하다.

② 2007년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첫째, 협의회 관련 기록정리, 각종규정의 정비 및 새로운 비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지난 해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의학분야 주제전문사서제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의



학도서관의 각종 전자저널 구독을 효율화하기 위한 협력과 국내의학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의학분야의 서적비치 현황을 조사하고 좋은 건강 의학 서적이 출판되고 국민에게 보급되도록 하는데 의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찾고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락처 : 서정욱 회장, (110-776)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번지 운현궁 SK HUB B동 726호, Tel. 02-725-5831, kmla@kmla.or.kr]

한국문헌정보학회

정동열 회장



① 2007년 한국 도서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와 전부 개정된 새로운 「도서관법」이 시행되면서 도서관 현장과 학계가 단합된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된 도서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

②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지 50돌을 맞이하는 한국문헌정보학회는 학계와 도서관 현장이 한층 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학회의 발전은 물론 실무 현장도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서관 현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학문임을 재삼 인식하여 각종 학술대회

나 도서관 관련행사에 학계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정된 도서관법의 시행에 따른 제반 현안문제와 관련된 연구, 국가 차원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연구, 최근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연구 등 학회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회지의 질적 우수성과 연계되어 학계와 실무현장의 발전에 실질적인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연락처 : 정동열 회장,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2-3277-2231, dyjeong@ewha.ac.kr]

한국서지학회 현영아 회장



① 21세기 정보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각 분야마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금년 우리 도서관계는 재도약의 서막이 펼쳐지리라 본다. 2006년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해 외국 도서관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도서관 발전의 향방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도서관상을 세우며 우리 현실과 맞게 도서관이 추구하는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현시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리라 본다.

② 올해 한국서지학회에서는 내적·외적으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적으로는 문헌정보학과 내에서 서지학분야 교육에 대하여 그 간의 회원들의 교육 경험과 교과과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

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폭 넓은 서지학 교육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에서 연간 3차례 실시하는 학술발표회 중 1회를 “서지학분야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가칭)을 기획 주제로 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외적으로는 타 학문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의 시도이다. 그 간의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나 이제는 서지학과 관련된 학제적 연구 주제를 기획하여 분야별로 더욱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역사학 등 타 학회와의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해 서지학의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락처 : 현영아 회장, (312-702)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41-750-6708, dhkim@joongbu.ac.kr]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변우열 회장



① 2006년에 개정·공포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도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공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독서진흥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교도서관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이어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2단계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Ubiquitous Library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과 계층별로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문제가 현안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도서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헌정보학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② 우리 학회의 큰 행사는 학회지 4회 발행, 하계와 동계의 학술발표대회 등이다. 그리고 연구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여하는 학술상 수여행사도 중요한 행사이다. 연구상은 학문적인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고, 우수논문상은 1년간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헌정보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실무 중심의 연구 또한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우리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이론 중심의 연구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현장에서 직접 정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하계와 동계 학술발표대회는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연구중심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어 학회 차원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2007년의 동계학술발표대회는 정기총회를 겸하여 1년간의 행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예산과 결산보고를 하고, 차기 학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연락처: 변우열 회장,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Tel. 041-850-8251, wybyun@kongju.ac.kr]

한국비블리아학회 서혜란 회장



① 2007년은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과 연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학문적 성취와 전문직의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마침 올해는 2006년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이 발효됨으로써 도서관계에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또한 WLIC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2007년의 도서관계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는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주민밀착형 서비스의 활성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와 교육기능 확대, 학술정보서비스의 고도화와 전문화 등

해묵은 난제들이 디지털 정보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함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② 한국비블리아학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계의 연구 트렌드를 반영하고 선도하는 기획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두 차례의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두 차례 발간할 예정이다. 학회의 가장 기본적인 학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위 두 가지 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학회는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에 힘쓸 생각이다. 이미 2005년도에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였고, 매년 선정된 기획주제에 따라서 타 분야 연구자들을 개인적으로 우리 학회에 참여시킨 경험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그 범위를 더 넓히고 가능하면 공식화·정례화하여서 문헌정보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연구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려고 한다. 또한 기성 연구자들에 비해서 연구와 실천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 정보전문직 종사자들과 학문후속세대들을 위해서 포스터섹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같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연락처 : 서혜란 회장, (617-736) 부산 사상구 과법동 산1-1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Tel. 051-309-5290, hrsuh@silla.ac.kr]

부산도서관연구회

주귀정 회장



① 공공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라고 한다. 올해는 더욱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한다. 그럴수록 곳곳에 도서관이 세워지고 어디선가 채용공고를 기다리며 실업상태에 놓인 많은 사서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 유치 등에도 작은 기대를 해본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시대에 공공도서관이 국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새로운 서비스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느끼며, 열정이 넘치는 사서들과 혁신을 거듭하는 도서관계가 문화의 척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② 상반기에는 부산도서관연구회(이하 부도연)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서교육팀을 필두로 마케팅팀, 전산팀, 평생교육팀 등 4개팀의 세분화되고 조직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독서교육팀에서는 2006년도에 이어 좀더 심도있는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사서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리라 생각되며, 마케팅팀에서는 도서관 현안문제를 도서관 대외적으로 새롭게 인식시키고 재정립시키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부산시산하사서협의회와의 친목도모 및 도서관 업무 교류 등을 활발히 하는 한 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전산팀에서는 부도연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도서관 안팎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평생교육팀에서는 평생교육 강연 등의 개최를 통하여 양

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연락처: 주귀정 회장, (614-845)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8-269번지, Tel. 051-802-3096, kuijeong@hanmail.net]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정경환 회장



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독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몇 년간 모 방송국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각 구청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활발하여 도서관 환경이 급상승함에 따라,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북스타트 운동의 추진으로 영유아들에게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아가 때 부터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식문화 공간으로 거듭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②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는 연구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서·정리분과, 열람봉사분과, 전산분과의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발과 정보교환으로 연구회지인 <도우> 제8집을 발간하여 정기총회시 발표와 전국 도서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 상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살려 전문성을 배양하며, 사서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미나를 비롯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연락처: 정경환 회장, (702-053) 대구 북구 옥산로 101번지, Tel. 053-350-0808, jkh8519@hanmail.net]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한복희 회장

① 도서관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개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도서관법」으로의 개정 등으로 인해 우리 도서관계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과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은 의미있는 한 해였다. 특히 도서관법의 개정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2007년 한 해를 새로운 희망과 도서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으로 설레임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광역시자치단체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문제, 작은 도서관 운영 등 갖가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주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봉사로 다가가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과 열람실의 10시, 11시까지 개방운영이 제반여건의 부족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서관 개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사서를 확보한 시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도서관계는 올 한해도 지역주민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계가 서로 협의하여 지역주민 가까이서 활발히 활동하는 내실 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②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는 울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 51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세미나 개최, 사서협의회지 발간, 분과활동, 사서가 원하는 한 권의 책 신문에 게재 등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먼저 급변하게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정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중심에서 업무수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며 둘째, 기존에 활동하던 3개 분과를 업무와 연계성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조정하여 도서관정보화, 독서교육, 평생교육, 홍보분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며 사서협회지 창간호 발간과 사서가 원하는 한 권의 책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연락처 : 한복희 회장, (680-717) 울산 남구 옥동 1397-12번지, Tel. 052-276-2786, moduls@use.go.kr]

경기도사서연구회 김지봉 회장



① 금년은 4월에 새로운 도서관법 시행으로 도서관위원회, 기획단, 도서관연구소 등 새로운 기구들이 발족되어 활동함에 따라 도서관의 변화에 기대를 가지게 할 것이다. 또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로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역 협력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7년도가 되면서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경기도사서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154명의 사서로 조직된 자생모임이다. 연구회는 최근 수년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립중앙도서관 건립과 사서직 증원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2007년도는 작년 3월 착공된 100만책 규모의 보존서고를 갖춘 새로운 도서관이 완공될 것

이고 사서직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 정해년에는 최근 양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경기도 교육청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4월경에는 경기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년 상반기에 수원시에 개최예정인 학교도서관대회에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또 경기도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 그리고 경기도사서협의회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경기도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끝으로 사서들의 도서관 경영학습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주관으로 3~4일 정도의 일본 공공도서관 연수나 그룹별 학습모임을 추진하기로 한다. [연락처: 김지봉 회장, (441-84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Tel. 031-248-3219, kgb1575@hanmail.net]

경기도사서협의회

김상철 회장



①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600년만의 황금돼지 해라는 속설속에 복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분위기로 사회가 한껏 고무되어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사서협의회에서도 '희망을 심는 경기도 도서관'이란 뜻을 담아 신년 화두를 '희망의 2007 힘차게 솟아오르는 경기도 도서관'으로 정했다. 작년 경기도 도서관이 101번째 개관을 하였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발돋움 하였지만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면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늘 갖고 있는 만큼 2007년 경기도 도서관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고, 창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각 도서관 별로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고객

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운영 체질을 개선해 '고객 가치 운영'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제 도입으로 조직·제도·사람 등 모든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는 만큼 전환기에 발맞추어 도서관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② 경기도사서협의회 홈페이지를 회원 편의 위주로 새롭게 개편하여 대내외 홍보와 회원들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 및 정책자료 검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금년 10월중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사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책소개, 사례발표, 특별강연등의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층 도약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2007년 경기도 도서관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새날이 밝았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 [연락처: 김상철 회장,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746-1, Tel. 031-228-4702, yungtong@hanmail.net]

경상북도사서연구회

이정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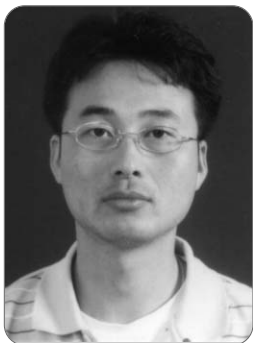
①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도서관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 도서관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되고 그에 따라 도서관계 전반이 활발한 움직임과 발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공공도서관 정책이 거의 부재상태였는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의해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와 지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의 취지대로 지정 운영되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지역도서관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② 경상북도사서연구회는 경상북도 소속 사서직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전체 도서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사업계획은 첫째, 본과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도서관법 개정 등으로 인한 2007년 도서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경북의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회원 개개인의 연구 활동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직 비율이 직원 정원 대비 1/3 수준이므로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서직 정원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전문성 강화 및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고, 4급 이상 직급의 직렬통합으로 사서직 출신 서기관이 일반 행정기관 또는 파견(1년 교육과정)으로 발령났는데 도서관 복귀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해의 실적과 경험을 축적하는 경상북도사서연구회보 3호를 발간할 예정이며, 회원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 등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사서직의 권익 향상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 노력할 것이다. [연락처 : 이정걸 회장, (714-802)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3리 508번지, Tel. 054-373-6617, jks281@hanmail.net]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이성희 공동대표

① 2007년은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이다. 지난 4년 동안 학교서관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장서가 확충되었으며 적은 숫자이지만 사서교사가 학교현장에 배치되는 등 소중한 결실을 맺어왔다. 지금까지의 4년이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장서를 확보하는 시간들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만들어진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프로그램과 이를 전달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과제이다.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 이후의 중장기적인 학교도서관 발전 계획이 나와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의 운동은 ‘학교도서관 운동’ 이고, ‘독서교육 운동’이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는 심포지엄 등을 통해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2008년 이후 학교도서관의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독서이력철과 독서인증제 등 왜곡된 독서교육을 반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학생,

교사, 학부모, 출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연락처 : 이성희 공동대표,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Tel. 02-720-7259, hakdonet@naimail.net]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순옥 회장



① 2007년은 모든 관공의 도서관이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상하며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리라고 여겨진다. 작년 도서관법 개정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법적 토대가 새로 마련되었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활성화 5개년사업이 올해에 마무리되므로 앞으로 학교도서관운영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② 작년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에 적은 수이지만 고루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학교도서관협의회는 비로소 전국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가운데에서 학교도서관의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 활동을 활성화시켜 흩어져 있는 사서교사들의 역량을 모으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연락처 : 이순옥 회장, (130-86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 7 청량고등학교도서관, Tel. 02-959-4362, soonogi@paran.com]